

선도기업의 생생 현장탐방

우범기 정무부지사, 에스모터스·테크카본 방문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지난 1일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완주군에 위치한 (주)에스모터스와 전주시에 위치한 (주)테크카본을 연달아 방문해 생산시설 견학과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심축인 선도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감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로, 매출성장 및 고용창출, 신기술 개발 등 우수기업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함은 물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주)에스모터스와 (주)테크카본을 찾게 된 것이다.

(주)에스모터스는 2013년 설립과 동시에 메르세데스-벤츠와 파트너십을 맺고 2015년 완주군에 정착 후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에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디자인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미니버스 및 리무진 밴을 생산, 단기간에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이는 등 프리미엄 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또, (주)테크카본은 전투기용 브레이크 디스크, 초고온 내열재 및 프리미엄 자동차용 탄소-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특히, 항공/방산 무기 분야의 탄소 복합재료로서는 세계적 수준이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두 선도기업을 차례로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체 관계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주)에스모터스 손주원 대표는 “올해 선도기업에 선정되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면서 “현재는 다임러 드럭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에스모터스라는 이름을 걸고 상용차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테크카본 강희원 대표는 “2016년 선도기업 글로벌 트랙으로 지정되어

탄소-세라믹 디스크 관련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현장으로 기술해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전라북도와의 탄소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탄소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전북도 핵심산업인 탄소와 자동차산업 분야의 선도기업을 둘러보니 지역기업의 미래가 밝아진 것 같다”면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사업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010년에 전라북도에서 자체 발굴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총 189개사가 선도기업에 선정되어 5년 지정기간 동안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기업지원 사업이다.

/김진성 기자



지난 1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전북도 임업인 한마음대회에서 송하진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소통과 유대의 한마당 '임업인 한마음대회' 성료

전북도는 지난 1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과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임업 관련 33개 기관·단체 1,000여명이(전북도 등 14개 시·군 480명, 서부지방산림청 등 2개 기관 130명, 시·군 산림조합 등 6개 단체 390명) 참석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도내 임업 관련 유관 기관·단체와 도·시·군 산림부서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소통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일체감 조성과 선진 산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인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였다.

또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사업 일자리 창출, 도민들이 다양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의 노력과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고,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산림자원을 가꾸는데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기관별 단합과 결속강화를 위하여 시·군과 해당 산림조합 직원 1만 명이 구성된 총 18개 팀이 3

각 줄다리기, 다림쥐 릴레이, 미션 릴레이 등 친선경기를 진행해 우승 1팀, 준우승 1팀, 장려상 2팀, 특별상 1팀에게 부상을 수여했다.

오후에는 노래하는 DJ 공연과 지역 가수 등 문화공연 관람과 임업인 OX 퀴즈,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와 뜨거운 열기로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마무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숲의 중요성과 가치 및 임산물 생산 등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임업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도내 임업 관련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여 앞으로 도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가꿔달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소방본부, 안전대책 추진... 인명피해 저감에 주력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기간(11월~2월)을 대비하여 '도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북도내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절별 화재발생비율은 겨울이 34.48%, 봄철 30.18%, 여름철 21.42%, 가을철이 13.92%로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

으며, 화재사망자도 겨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5개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집중 추진되는 5개 전략으로는 ▲범국민 화재예방 운동 전개 ▲취약대상 화재예방활동 강화 ▲화재 초기 총력 대응체계 확립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지역별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겨울철 중점 추진과제로 △겨울용품 사용 부주의 화재저감을 위한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집중 홍보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무각본 불사대피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재난관리의 3단계인 예방·대피·대응의 종합적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기간 중 도내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나눔문화 확산 위한 식품나눔축제 개최

전북도는 지난 2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도내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람의 식품을 전달하고자 도내 식품관련업체 대표, 전북도내 봉사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9회 기부식품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기업체 및 개인유공자표창,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협약식, 한옥마을 걷거리홍보, 비빔밥나눔행사 등이 진행됐다.

표창 수상자인 '맘애타르트' 김원만 대표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천

여만원(190회) 상당의 식품을 기부하여 나눔과 기부문화를 몸소 실천했으며, 김제기초푸드뱅크는 1998년 외환위기 시절부터 김제지역의 결식가정이나 결식자 등 소외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약 22년동안 푸드뱅크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나눔축제의 또 다른 의미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

다. 이번 축제에서는 육가공 전문 업체인 군산 (주)나인팜스와 건강한 수제과자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 '맘애타르트'와 기부물품지원을 협력하여 행복한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기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500인분의 비빔밥 나눔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관계자 및 도민들과 함께 시시행사도 가졌다.

또한,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걷거리홍보와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내 식품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김진성 기자

“인권문화 컨벤션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일부터 전북도청·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서 개최

전북도와 2019 전북도 인권문화 컨벤션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7일부터 4일간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주제로 2019 전라북도 인권문화 컨벤션을 개최한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인권문화 컨벤션은 전라북도와 도내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7개 민간단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기념식, 토론회, 영화제, 인권부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 단위 인권축제다.

7일 오후 3시에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기념식에는 준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인권유공자 표창, 인권작품 공모전 입상작 시상을 한다.

인권문화 컨벤션은 인권토론회, 인

권체험부스, 인권작품전시 등은 도청사에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며, 인권영화제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9~10일까지 2일간 스포츠,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인권 주제로 진행된다.

인권토크로 7일은 전북도 인권위원회 주관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영화제, 인권부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 단위 인권축제다.

7일 오후 3시에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기념식에는 준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인권유공자 표창, 인권작품 공모전 입상작 시상을 한다.

인권문화 컨벤션은 인권토론회, 인

다 많은 도내 주요 인권 관련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활동 홍보와 및 체험을 위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인권영화제는 9일부터 개막작으로 선정된 '4등' 상영과 함께 정지우 감독과의 대화를 갖는다. 이밖에 '두 번째, 가버나움'(9일), '하늘의 황금마차', '주전장', '마이리틀 히어로'(10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영화 총 6편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인식 개선을 위한 2019 인권작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포어, 포스터, 사진, UCC 등 4개분야 인권작품 총 18점도 전시한다.

도 관계자는 “2019 전라북도 인권문화 컨벤션을 통해 도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인권단체간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공고 제 2019-2092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자동차정류장	공영 차고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5-97번지	-	(중) 4,338.7	4,338.7	금회	-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신설 - 위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5-97번지 - 면적: 4,338.7㎡	• 전주역 이용객 및 역세권 방문객들에게 관광서비스 공간 및 이동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함

2. 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안): 실용 생략
3.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의견제출처: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281-2418)
5. 기타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우편, 팩스, 이메일(sjnhah1@korea.kr),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4일 전주 시장